

수해에 관한 건의안

의안 번호	498
----------	-----

발의년월일 : 1999년 8월 12일

발 의 자 : 이재일의원 외 4인

1. 주 문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과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다음 사항을 건의함.

- 가. 수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가능토록 특별법의 제정등
정부차원의 지원
- 나.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 강구
- 다. 제방보다 낮은 철도 및 통일로 승상 조치
- 라. 『접경지역특별지원법』의 입법촉구

2. 제 안 이 유

- 가. 지난 7월 31일부터 파주시 전역에 쏟아져 부은 700mm이상의 폭우는 고귀한 생명과 이재민 3,817세대, 12,652명과 건물파손 및 침수 2,937동, 농경지 유실 및 침수 7,416ha, 공공시설물 파손 371개소등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나. '96년과 '98년 수해이후 항구 복구가 되지못하고 충분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차 엄청난 수해를 당한 수재민들의 그 참담함과 비통함은 이루 형언할 수 있는 실정임.
- 다. 따라서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과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임.

건의문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들은 황폐화된 수해현장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수재민들을 보며, 그들의 입장을 대표하고 대신할 지방의원으로서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6년과 '98년에 이어 세차례나 물난리를 겪어 삶의 의욕마저 잃고 있는 수재민들의 참담함과 비통함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번의 엄청난 피해가 지난 '96년과 '98년에 입은 수해가 아직 복구되지 못하고 충분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하니 정부와 관계기관들의 미온적인 대처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금번 수해가 그 동안의 체계적이지 못한 치수관리와 수해복구사업의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과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뜻을 모아 다음 사항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 우리는 금번 수해가 '96년과 '98년에 이은 세번째 재앙이며 이는 정부의 체계적이지 못한 치수관리에 기인한 정책실패라는 점을 인식하여 수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건의한다.

1. 임진강을 비롯한 지천의 하상정리와 제방보강공사 등 하천개수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1. 문산 시가지 침수의 주요원인으로 작용된 제방보다 낮은 철도 및 통일로를 승상조치하여 수해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한다.

1. 차제에 6.25전쟁 이후 접경지역이란 이유로 체계적인 개발을 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파주지역도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계획 및 수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칭 『접경지역특별지원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1999. 8. 14

파주시의회 의원일동

○ 제출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 철도청장, 중앙재해대책본부장, 새정치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 자유민주연합총재, 한나라당총재,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장, 새정치국민회의파주시지구당위원장, 자유민주연합파주시지구당위원장, 한나라당파주시지구당위원장, 파주시장